

두 몰몬 선교사들과 함께한 방문기

Written by Dr. Dean Helland

2006년 3월 11일 토요일, 오전 11시경 누군가가 내 집 문을 두들겼고, 문을 여니 두 명의 몰몬 선교사가 문 앞에 있었다. 나는 이 두 젊은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에 대해 무척 즐거웠고, 이들을 거실로 인도하여, 소파에 앉히고 그들이 이미 준비한 이야기들을 돌려 줄 것을 청했다. 다음의 내용은 우리의 대화를 요약한 것이다.

와이트 형제와 스미스 형제는 기도로 대화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고, 나는 이에 흔쾌히 응했다. 와이트 형제가 그의 팔로 십자가 모양을 만들며 몰몬식 기도 포즈를 취하는 동안 스미스 형제는 그와 같은 포즈를 취하지 않고 기도했다. 그 기도문은 짧았으나, 적절했다. 이후, 와이트 형제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우리의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한 내 종교적 소속에 대해서 물었고, 나는 그에게 펜테코스트(성령 오순절)의 신자이며, 오클라호마 털사에 위치한 Evangelistic Temple의 일원으로,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말했다.

와이트 형제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 그분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세상에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게 하셨으며, 또한 성령님을 보내시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을 바른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동의 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몰몬교리에서 말하는 성적인 관계의 하나님 아버지를 제외하고 다른 내용들에 관해서는 인정한다고 그에게 말했다.

그는 또 다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냐며 물어왔다. 그에 대해 나는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라며 응했다.[1]

이 대답에 대해 화이트 형제는 다소 이해하기 힘들어 보이는 듯했으나 나는 계속 말을 이었다. “모슬렘들은 크리스찬들이 믿는 성부의 하나님은 마리아와의 성적 관계를 통하여 예수를 낳았다고 비난합니다. 물론 그것은 모순이죠. 그러나, 그의 이웃들에 의하면, 몰몬교의 창시자, 요셉 스미스는 그가 몰몬서를 제작하기 전에 굉장한 코란 숭배자였고, 실제로 그는 이슬람교리의 많은 부분들을 몰몬교리에 적용시켰습니다.”[2] 이에 대해 화이트 형제는 “저도 어디에서인가 하나님께서 마리아와의 육체적 관계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만은, 다소 스캔들 같아 보였어요.”[3]

“그래요” 나는 계속 대화를 이었다. “그것이 바로 엘로힘(Elohim)”이 이 세상에 와서 마리아와 육체적 관계를 통하여 예수를 낳았다고 브라이헬영 이 가르친 것이예요.”

이 젊은 청년은 또한 선지자의 중요성에 관하여 이야기를 전개시켰다. 그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선지자였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역사를 거쳐서 인간에게 말씀하셨으며, 구약시대에는 많은 선지자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모스 3장 7절을; “주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읽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지자들을 교회에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교회를 이끌게 하시며, 성도들에게 그의 말씀을 대변하는지 설명하였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교회에 세우셨죠. 그것은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습니다.[4] 그러나 그들이 결코 교회의 대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나는 그에게 말했다.

“네 맞습니다.” 화이트 형제가 동의했다. “저도 그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교회에서 특별한 위치에 세우신 것을 당신이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또한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위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네, 맞아요” 나는 대답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그의 첫 설교를 유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넬료의 집에서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설교를 했죠. 베드로는 분명 하늘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었죠. 그러나, 당신은 성경을 전체적 문맥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베드로를 첫 번째 교황이라고 말할 때 인용하는 구절들을 당신들도 마찬가지로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만약 당신이 전체적으로 성경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예수님이 이러한 것을 물었던 것을 알 수 것이에요. ‘누가 나를 사람의 아들이라 일컬느냐!’ 몇 몇의 명상적인 대답 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셨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할거니?’” 그리고는 나는 계속 이었다.

“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13-18>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요한 초석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신앙은 교회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가르침과 신앙은 신약성서에서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베드로(Peter)를 Petros 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는 헬라어로 바위조각을 일컫는 Petra에서 유래된 것이며, 교회를 세운 큰 바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하나님이지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주이심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관계를 말하고 있지만, 성적인 관계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베드로가 가졌었던 다음과 같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성스러운 계시를 믿음으로써,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맞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계시를 밝혀야 합니다.” 화이트 형제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사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죠?”

“그럼요, 나는 사도들이 교회의 기반을 닦았음을 인정합니다. 신약의 몇 책들은 이런 사도들에 의해서 쓰여졌죠. 성경의 다른 책들은 그들의 사역과 가르침이 인정된 사람들에 의해 쓰여졌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약 성경을 믿고 있는 이유입니다. 본래의 열두 사도들이 행했었던 사역과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지금도 그들의 사도적 사역이 행하여 진다고 믿습니다.

열두 사도들의 사역들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그들은 초기 기독교의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따르면, 열두 사도에서 빠진 가룟유다를 대체하기 위해 사도들은 그를 대체할 사도의 조건으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래로 부활 이후 하늘로 승천(사도행전 1:21-22)하신 것을 목격한 자이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그 조건을 충족시키진 못했었죠. 요한 계시록 21장 14절에서 우리는 이들 열두 사도가 새 예루살렘의 열두 기초석으로 쓰여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따랐던 열두 사도들은 그들의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우리에게 가이드를 제시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신약성서입니다.”

“네, 예수님의 사도들은 매우 특별했어요.” 화이트 형제가 대화를 이었다. 그러나 사도들이 사람들에게서 배척되기에 이르렀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요한복음 16:2)

때가 되어, 주의 사도들은 사람들에게서 배척당하며, 죽임을 당하고, 교회는 이 지상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은 암흑시대로 알려진 어둠의 시기에 들어오게 되었었고, 이 어둠의 시기는 1820년 요셉 스미스를 통해서야 비로소 회복되어졌습니다.”

“잠깐만요” 나는 반박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반석들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지옥의 문은 그것을 지배하지 못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사도들의 죽음 이후 요셉 스미스의 시대까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생각합니까? 또한 어둠의 시기 동안에 지옥의 문이 교회를 지배했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예수님이 성경에 말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에요. 당신은 fox's Book of Martyrs 책을 읽어보는 것이 낫겠어요.”

이 때, 스미스 형제가 요셉 스미스가 나무에서 기도하던 중에 두 명의 같은 형상의 사람이 나타났고, 그 중 한 명이 다른 이를 보고 아들이라 했다는 그의 체험담을 인용하며,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봤다고 말했다.

“그것은 불가능해요!!” 나는 거의 울부짖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5]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가 말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단지 지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도록 허락하신 유일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를 지적했다.[6]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 준 전부였다면, 하나님은 분명 요셉 스미스에게도 그의 전체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 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 모습마저도 구약성서에서의 보여졌던 예수님의 선재(先在)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신약성서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도 인간에게 보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죠.”

이때, 스미스형제는 초롱초롱한 눈으로, 요셉 스미스가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이며 몰몬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번역되었다는 것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시작하였다.

“몰몬 교회 자체적으로 그 성경에 대하여 4,000번의 교정을 했다는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나는 그들에게 되물었다.[7]

“그것은 단지 문법적인 수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답했다.

“아니요, 그것은 교리적인 교정도 있었죠.” 나는 반박했다. “1981년에 몰몬회에서는 니파이후서 30장 6절에서 선지자 lamanites으로부터 제거된 피부색의 저주를 일컬을 때, ‘하얀 (white)’을 순결한(pure)로 바꾸었어요. 그때까지, 몰몬회의 공식적 교리는 몰몬교를 믿는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그들의 피부색의 저주를 끊고, 그들의 피부가 하얗게 변한다는 것 이었습니다. 이것은 몰몬성경의 전반적으로 보여지고 있지만[8] 실제적으로 드러난 사례는 몰몬성경이 출판된 1830년부터 1960년 까지 볼 수 없었었죠. 1960년 후반에 몰몬 선지자 스펜서 W. 김벌은 LDS 총회에서 그가 몰몬교로 회심한 인디언들을 방문할 때마다 그들의 피부색은 조금씩 하얗져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9] 그러나 몰몬회에서는 몰몬성서의 단어와 인디언들의 피부색에 관한 교리를 바꿨었죠. 교회 대변인 제리 P.캐힐은 이 교리의 교정을 연합통신을 통해 보고했습니다[10].”

“자, 당신도 볼 수 있듯이 몰몬교는 인종차별주의 단체 입니다. 그들의 공식적인 가르침은 언젠가 모든 다른 인종들이 그들의 피부의 저주를 끊고, 하얗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참조,야고보서 3:5-8) 사실, 종족에 관한 몰몬회의 본래의 가르침은 그리 개방적이지 못해요. 아프리카인들은 1978년이 이르러서야 비로소 몰몬 목회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들의 피부색 저주에 관한 교리는 바뀌지 않은 상태였죠. 아벨의 자손들은 아프리카 종족이 그 저주를 끊기 전에 먼저 부활해야 한다는 그들의 교리는 아직까지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11]”

내가 이야기를 마치자, 이 두 젊은 몰몬 선교사들의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실, 나는 몰몬신자였어요.” 나는 고백했다. “나의 가족들은 미저리에 있었던 우리들의 소유물을 모두 팔고,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몰몬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리조나로 갔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몰몬서를 통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두 가지의 굉장한 약속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로는, 그들이 피부의 저주를 끊고, 그들이 피부가 하얗게 되고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둘째로는, 때가 이를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땅을 되돌려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성경의 어디에 있죠?” 한 형제가 물어왔다. “적어도 물문서의 두 부분에 나와 있을 것ですよ; 제3니파이 16장과 21장ですよ.” 그리고는 이들의 물문서를 빌려서 제3니파이 16장을 보여주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미국 대륙 권리에 관한 예수님에 의해서 선포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10 이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을 아버지께서 명하시느니라. 이방인들이 나의 복음을 대적하여 범죄하며, 내 복음의 충만함을 거부하고, 그 마음의 교만 중에 모든 나라 위에와, 온 땅의 모든 백성 위에 자고하며, 온갖 거짓말과 속임과 악행과 온갖 위선과 살인과 사제술과 음행과 은밀한 가증함으로 가득차게 되는 그 날에, 만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하고 내 복음의 충만함을 거부할진대, 보라,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복음의 충만함을 그들에게서 취하리라.

11 또 그때에 이스라엘 집이여, 내가 내 백성에게 세운 바 나의 성약을 기억하고, 나의 복음을 그들에게로 가져올 것이니라.

12 또 이스라엘의 집이여, 내가 이방인들이 너를 다스릴 권력을 갖지 못할 것을 네게 보이나, 오 이스라엘의 집이여, 네게 세운 나의 성약을 내가 기억하리니, 너희가 나의 충만한 복음의 지식에 이르게 되리로다.

13 그러나 이스라엘의 집이여, 만일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올진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그들이 나의 백성 가운데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14 또 이스라엘 집에 속한 나의 백성이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며, 그들을 짓밟음을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15 그러나 그들이 내게로 돌이켜, 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 아니할진대, 이스라엘의 집이여, 내가 그들에게 허락하여, 참으로 내가 나의 백성에게 허락하여, 그들로 하여금 저들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저들을 짓밟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집이여, 저들이 이후로는 아무 쓸 데가 없어 다만 밖에 던지워 내 백성의 발 아래 밟힐 따름인 그 맛을 잃은 소금 같으리로다.

16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이같이 내게 명하시 - 나로 이 땅을 이 백성에게 주어 저희 기업을 삼게 하셨느니라.

“인디언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들이 물었다.

“글쎄요.” “처음에 그들은 그들의 피부색이 바뀔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감동이 없는 듯 보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땅을 되찾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그들 중 한 리더가 그의 엄지를 탁상 위에 대고 누르며, ‘이 백인들이 이 엄지손가락을 아래 두고 우리가 결코 그들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1956년에 있었던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 중 한 명이 반박했다. “그것들은 실현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는 대답했다. “예수님께서서는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성서에서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는 말을 이었다. “나는 당신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몰몬교에서 일어난 많은 변화들을 알기에는 너무 젊어요. 당신들의 성실성과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위한 바램들은 의심치 않아요.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교회가 진정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것을 모르고 있어요. 진실된 교리를 알기 위해서, 당신은 돌아가서 Journal of Discourse에 있는 구 몰몬 설교를 읽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의 몰몬 교리는 예전과 같지만 약간은 교정된 것이죠. 몰몬 교회에서는 그들의 교인들이 예전 교리의 책들을 읽기를 바라지 않아요. 사실, 그 책들은 몰몬인들이 비몰몬인들과 대화하기 위해 그들을 이목을 끄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죠. 그것들은 종파를 초월한 논의거리를 그것의 공식적인 구절 테두리 안으로 제한하니까요.”

“그러나 몰몬 교사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가르침에 대한 참조 방법을 제시합니다. 나는 위성방성에서 몰몬 채널을 보는데, 그들은 Journal of Discourse에 끊임없는 참조자료를 덧붙여 그들의 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정한 복음은 신약성경에 모든 것이 포함 되어 있다고 결론을 맺었고, 요셉 스미스의 개혁은 잘못된 길로 빠진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나는 여전히 천국에 갈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나의 믿음은 예수님과 신약성서에서 담고 있는 그의 가르침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하셨다면, 요셉스미스와 몰몬서에 대한 부족한 믿음이 나의 영혼을 잃게 할 수는 없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23)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유다서 3)

이 때쯤, 그 몰몬 선교사들은 그들의 탈출구를 찾으려고 애썼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좀더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들이 또 다시 요셉스미스와 몰몬서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드러냈을 때, 나는 슬프게도 그들의 주장을 고쳐주었다.

“아니요,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성경에서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당신들은 신약성서의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가르치고 있군요.”

4.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13.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궤홀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우리의 논쟁은 그들이 참으로 진실된 예수그리스도의 복음과 참된 구원을 알기를 바라는 나의 기도로 마쳤다.

나는 이 젊은 두 몰몬청년의 방문을 나의 크리스찬 친구들과 몰몬 친구들을 위해 글로 남겼다. 나는 이 글이 당신을 축복할 것이라고 믿는다.

[1] 히브리서 11:3,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창세기 1장, 창조를 말할 때, 성경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창공, 마른 땅, 지구, 풀, 나무, 빛, 창조물 등” 이러한 구절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

[2] R. C. Evans, *Forty Years in the Mormon Church--Why I left It* (1920, 깃., Independence, MO: Ex-RLDS for Jesus, n.d.), 32.

[3] 이것이 몰몬회의 공식적 입장이다: 참조, *Journal of Discourses*, vol. 8, pages 115, 211.

[4] 사도행전에서 나타나 있는 선지자는 아가보와 (11:27-28, 21:10-11) 전도자 빌립의 딸이다.(21:8-9)

[5] 요한복음 1:18;4:24; 골로새서 1:15; 디모데전서 1:17

[6] 출애굽기 33:18-23

[7] Tanner, Jerald & Sandra, *3,913 Changes in the Book of Mormon*, Utah Lighthouse Ministry: Salt Lake City, 1965.

[8] 몰몬서, 니파이전서 12:23; 제3니파이 2:15-16; 야보고서 3:5-8

[9] Improvement Era, 1960, p.922-23

[10] Salt Lake Tribune, 9.30,1981.

[11] Journal of Discourses, Vol. 2, p. 143; Vol. 7, p. 290-291; Vol. 11, p. 272